

<컴패션 뉴스레터 1966년 1-2월 특별호>

영원히 기억될 한 해의 주요 사건들

특별호

- E. F. 스완슨 목사의 소천
- 컴패션 비전트립 리포트
- 제임스 존슨, 스튜어드십 부서장으로 임명

컴패션의 설립자가 소천했습니다.

1965년 11월 15일, 컴패션의 설립자 에버렛 F. 스완슨 목사님이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신실하게 섬기며 주 안에서 풍성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사진)

에버렛 F. 스완슨 목사 (1913년 12월 13일 ~ 1965년 11월 15일)

1965년 11월 15일, 에버렛 F. 스완슨 목사님이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이 땅에서의 삶에는 마침의 휘장이 드리워졌지만, 주님의 얼굴을 영원히 바라보는 삶에는 하늘의 휘장이 걸렸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스완슨 목사님이 삶을 통해 보여준 섬김은 너무나 풍성하고 충만했기 때문에 그가 주님께 쓰임 받은 수많은 방법을 일일이 다 이야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아홉 살에 구원을 받은 그는 십 대 초반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모임에서 간증하고 말씀을 전하며 역동적인 전도 사역의 문을 열었습니다. 21세에 결혼한 뒤, 아내 미리암과 함께 전국적인 전도 활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전도를 위하여 다양한 목회지에 대한 부르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목회사역은 1944년부터 1951년까지 7년간 시카고 센트럴 애비뉴 침례교회(Central Avenue Baptist Church)에서의 복된 목회로 집약됩니다. 그는 세계 복음전도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이 교회의 목사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세계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인간의 영혼에 대해 가졌던 거룩한 부담감은 오직 영원의 시간만이 드러낼 것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절망적인 곤경을 보았을 때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아파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필요에 대해 말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자, 한국을 위한 기도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컴패션은 오늘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없는 규모의 사역으로 성장했습니다. 수만 명의 고아들이 희망과 구원을 찾았고, 수백 명의 학생과 전도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며, 효과적인 기독교 문서 선교 프로그램이 착수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에버렛 F. 스완슨 목사님의 순종과 헌신 덕분입니다.

(사진)

1. 스완슨 목사님은 선교사이자 사회적 지도자이셨으며, 행정가로서도 활발하게 사역하셨습니다.
2. 수천 명의 굶주리고 집 없는 어린이들이 스완슨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따뜻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3. 스완슨 목사님은 사진 속의 "시각장애인 박 전도사"처럼 1,000명이 넘는 전도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셨습니다.
4. 스완슨 목사님이 한국 어디를 가시든, 행복과 감사로 가득한 어린이들이 목사님을 둘러싸며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5. 스완슨 목사님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대한민국 공익 훈장을 받으며 가장 큰 영예를 얻으셨습니다.
6. 목사님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보육원을 방문하여 어린이들이 목사님을 맞이했을 때였습니다.

잊을 수 없는 한 해였습니다.

1965년은 컴패션 사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축복과 슬픔, 재헌신의 해였습니다. 다음은 컴패션의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는 해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해였습니다. 1965년 컴패션에는 극적인 사건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들은 다양한 반응을 일으켰으며, 기쁨과 찬양과 축복과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는 “모든 것을 선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 **4월에** 연례 바이블 콘퍼런스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스완슨 목사님은 콘퍼런스 강사인 고든 C. 존슨(Gordon C. Johnson) 목사님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하루 4번의 예배에 각각 평균 8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 **7월에** 스완슨 목사님은 1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에서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전 몇 달 동안 매우 아팠습니다. 의사는 뇌종양으로 진단하고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그 이후 몇 달은 힘든 시간이었지만, 신체적으로 점차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그의 간증은 날로 더 강해졌습니다. 11월 15일,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그의 간증은 승리의 장례식을 통해 표현되었습니다.
- **10월에** 제임스 존슨(James Johnson)이 스투어드십 부서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부임은 컴패션 내 스투어드십 부서의 설립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실한 청지기 직분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랫동안 구상되어 온 아이디어입니다.
- **11월에** 컴패션의 후원자들과 지지자들 118명이 세계 선교 활동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순례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3주 동안 동아시아 지역을 여행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며 컴패션 보육원을 방문하고 컴패션의 여러 사역 현장을 보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해는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을 위한 수고 속에서 그분의 계획과 목적에 새롭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제임스 존슨이 스투어드십 부서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965년 10월 15일, 제임스 E. 존슨 씨가 지역 스투어드십 부서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존슨 씨는 그리스도인 청지기 직분의 특권과 책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2년 전 저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훌륭한 청지기의 필요성을 충격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땅 한국에서 불과 몇 시간 전에 탑승했던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거리에 있는 한국은 가진 것이 너무 적은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다면 그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성경은 먼지를 불러 모을 뿐이지만, 한국에서 성경은 사람들의 영혼을 끌어모읍니다. 여기서 음식은 종종 낭비되지만, 한국에서는 음식이 부족해 사람들이 죽어 갑니다. 이곳에서는 아기들이 보살핌과 포용을 받지만, 한국

¹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 미국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에 본사를 둔 종합 병원.

에서 아기들은 길거리에 버려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선한 청지기직의 필요성과 이것은 이기적이지 않은 나눔을 통해서만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점을 계속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누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우기를 대비해 저축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노후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우기가 오더라도 저축액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이 노년에도 여전히 안정을 유지하면서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집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 먼저 가셨기 때문입니다.

-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2)
- “...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7)
- “...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38)
-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잠언 28:27)
- “...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누가복음 11:41)

여러분은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항상 더 클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주셨으니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그분께서 결정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직은 의무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잠언 15장 22절은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패션이 이제 여러분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청지기 상담”은 여러분의 목적이 좌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유연장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원하시면, 오늘 바로 아래 주소로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 7774 West Irving Park Road Chicago, Illinois 60634

(사진)

제임스 존슨

1965년 10월 15일, 제임스 존슨 씨가 컴패션의 지역 스튜어드십 부서장으로 합류했습니다. 귀중한 주님의 종이 풍성한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패션 비전트립 리포트

113명의 후원자가 11월의 멋진 3주 동안 동아시아 지역을 순회하고 한국에 있는 고아들을 방문했습니다. 그 즐거운 여행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사진)

1. G. A. 햄월(Hemwall) 컴패션 이사회장이 매일 아침예배를 인도했습니다.
2. 비전트립 참가자들은 일본의 유명한 미키모토(Mikimoto) 진주 채취 잠수부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3.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의 S. 와이른(S. Wirne) 여사는 아름다운 일본 정원의 풍경을 촬영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4. 펜실베이니아주 랜스데일(Lansdale) 출신의 필립 마클리(Philip Markley)와 앤 마클리(Anne Markley) 부부가 이세(Ise) 신사 앞에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5. 루시 베이커(Lucy Baker), 루스 버몬트(Ruth Beaumont), 엘리자베스 부싱(Elizabeth Busching), 버사 러셀(Bertha Russell) 여사가 간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6. 온타리오주 블렌하임(Blenheim)의 프랭크 우드리프(Frank Woodliffe)와 글렌 클리블랜드(Glenn Cleveland)는 "일본식" 생활을 체험했습니다.
7. 일본의 사원과 신사는 참가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을 상기시켰습니다.
8. 비전트립 참가자들은 일본의 교토에서 전통 꽃꽂이 의식을 관람했습니다.
9. 이 네 명의 일본인 비전트립 가이드는 복음 전도지를 받고 진정한 기독교 간증을 들었습니다.
10.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차에 모두 탑승하세요! 비전트립 참가자들은 시속 150마일로 달

리는 기차 여행을 즐겼습니다.

11. 뉴욕 스펜서포트(Spencerport)의 글렌 길버트(Glen Gilbert) 부부는 아름다운 일본 정원을 감상했습니다.
12. 동양기독교성회(Orient Asia Christian Crusade)의 일본 합창단은 참가자들이 일본에 머무는 동안 축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1965년 11월 5일, 전 세계 해외 선교지를 방문한 가장 큰 단체 중 하나가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트립 팀이 시카고 오헤어(O'Hare) 국제공항에서 탑승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에버렛 스완슨 목사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의 아들 잭(Jack)은 몇 시간 전 병원에서 아버지를 휠체어에 모시고 왔고, 이제 그는 참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기쁘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불과 열흘 후에 스완슨 목사가 지난 몇 달간 힘들게 투병했던 악성 뇌종양으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 누가 알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승리와 환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이제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지요!

컴패션 비전트립은 약 2년 전에 구상된 하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몇 주, 몇 달간의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주 블렌하임(Blenheim)의 로버트 포사이스(Robert Forsyth) 비전트립 담당 실장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이 없었다면 이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포사이스는 또한 캐나다 컴패션의 헌신적인 이사이기도 합니다. 그의 아내 재닛 포사이스(Janet Forsyth)는 그의 비전트립 진행 방향을 도울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트립 리포터로서 활동하며 이 멋진 화보를 완성하게 했습니다.

비전트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함께했음이 분명했습니다. 일본에서의 관광과 홍콩에서의 쇼핑은 모두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짜릿한 순간은 한국에서 보낸 시간, 특히 후원자와 어린이들이 만나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비전트립이 끝난 후 로스앤젤레스의 네티 하르만(Nettie Harman) 양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비전트립은 정말 훌륭하며 스틸 넘치는 경험이었습니다. 항상 좋은 추억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함께한 참가자들은 참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아침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이 그 찬양 소리를 들으셨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차로 여행하면서도 계속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블룸(Bloom) 씨는 버스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유쾌한 그룹이었고, 농담과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독실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큰 특권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교회에 들어갈 때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고개를 숙임으로써 경건을 표합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제가 후원하는 고아인 경자(Kyung Ja)를 만나기 위해 마지막 금요일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말에 만나게 된 것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것이 비전트립의 절정이었으니까요!”

네, 정말 축복받은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격려를 안겨주었고, 트립 참가자들의 삶에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 여행은 분명히 향후 몇 년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 사진이 여러분의 관심을 끌었다면, 1967 년에 또 다른 비전트립이 고려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진)

1. G. A. 햄월(Hemwall) 컴패션 이사회장이 한국에 도착하며 환영의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2. 모든 버스와 호텔에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3. 줄지어 선 어린이들이 비전트립 참가자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들은 “엄마와 아빠”를 만나는 기쁨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4. 앵커리지의 로버트 클레이(Robert Clay) 씨가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어린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 부산시 부시장이 로버트 포사이스 컴패션 캐나다 대표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6. 신문, TV, 라디오 기자들이 서울 공항에서 비전트립 팀을 맞이하기 위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7. 로버트 포사이스 비전트립 담당 실장이 한국 경찰 호위대의 도움을 받으며 트립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8. 후원자들이 부산아동자선병원(Pusan Children's Charity Hospital)에서 컴패션의 의료 활동을 살펴보았습니다.
9. 컴패션 현지 대표인 로버트 모건(Robert Morgan) 목사님이 만찬에서 트립 참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습니다.
10. 비무장지대의 “자유의 집” 방문은 참가자들에게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11. 한국 관광청은 우리 비전트립 참가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협조로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12. 모든 보육원을 방문할 때마다 어린이들은 기쁨과 설렘의 미소로 후원자들을 맞이했습니다.
13. 후원자들은 서울 소재 머시 라이프 보육원(Mercy Life Orphanage)에서 어린이들이 실제 어떻게 돌봄을 받고 있는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14. 비전트립 참가자들을 대표하여 로버트 키니(Robert Kinney) 씨가 기독교 문서선교를 위하여 987.09 달러의 수표를 전달했습니다.
15. 글렌 블룸(Glen Bloom) 씨가 비무장지대의 U.N. 묘지에서 기도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기쁨!

비전트립 전체에서 가장 큰 기쁨은 후원자와 어린이들이 처음 만났을 때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결코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사진)

1. 비전트립 참가자 중 막내인 김 포사이스(Kim Forsyth) 양은 자신의 한복을 맞춰 입었습니다.
2. 후원자들은 이스턴 라이트 보육원(Eastern Light Orphanage)의 소년들이 손으로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3. 뉴욕주 오번(Auburn)에 사는 밀드레드 헌티(Mildred Huntley) 씨가 이종표(Lee Jong Pyo) 어린이의 어깨를 감싸안아 주었습니다.
4. 일리노이주 에번스톤(Evanston)에 사는 폴린 헤나드(Pauline Henard) 여사가 제영현(Jay Yung Hyun) 어린이를 자랑스럽게 포옹했습니다.
5. 고아 소녀와 원장님이 버사 러셀(Bertha Russell) 여사에게 꽃다발을 선물했습니다.
6. 오리건주 살렘(Salem)에 사는 엘라 스켈턴(Ella Skelton) 양이 보육원의 어린이들을 위하여 인형 옷 25 벌을 가져왔습니다.
7. 캘리포니아주 코비나(Covina)에 사는 조셉 알콕(Joseph Alcock) 씨가 고아들과 함께 공놀이를 즐겼습니다.
8. 헌신적인 교사인 셸리 버킨(Shirley Bourquin) 씨는 여섯 어린이를 후원하는 행복한 후원자입니다.

9. 보육원 원장님과 그의 가족이 버사 킬롯슨(Bertha Tillotson) 여사를 맞이하기 위해 와 주었습니다.
10. 메리 앤 알스트롬(Mary Ann Ahlstrom) 후원자가 세 살배기 아기 이해순(Lee Hae Soon) 어린이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11. 해리 스파크스(Harry Sparks) 여사가 위버 메모리얼 병원(Weaver Memorial Hospital) 원장님에게 기저귀를 기증했습니다.
12. 오클라호마시(Oklahoma City)의 엘머(Elmer) 씨가 명랑한 두 소년으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13. 비전트립 참가자들이 서울의 유명한 영락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4. 릴리안 트림블(Lillian Trimble) 여사가 파주 크리스천 보육원(Pajoo Christian Orphanage)에서 신상휘(Shin Sang Hui) 후원 자녀를 만났습니다.
15. 켄터키주 렉싱턴(Lexington)의 낸시 포프(Nancy Pope) 여사가 이홍순(Lee Hong Soon) 어린이로부터 코르사주를 받았습니다.
16. 김영문(Kim Yung Moon) 어린이는 델로레스 보드(Delores Bode) 양의 후원을 받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17. 이사벨 스웁크(Isabelle Swank) 씨는 소중한 어린이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며 매우 기뻐했습니다.

(사진)

1. S. 매킨로이(S. Mcinroy) 부인과 N. 코넬(N. Cornell) 부인은 임종균(Im Jong Kyun) 어린이의 열성적인 공동 후원자입니다.
2. 론조 맥스빌(Lonzo Maxville) 부부가 후원 아들을 만났을 때, 아들로부터 '어머니'를 위한 코르사주를 받았습니다.
3. 보육원 원장님과 어린이가 코네티컷주 스트랫퍼드(Stratford)의 해럴드 포스버그(Harold Forsberg) 부부를 맞이했습니다.
4. 캘리포니아 휘티어(Whittier)의 우드워드(Woodard) 씨와 이필순(Lee Pil Soon) 어린이가 광주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5. 원장님이 콜로라도주 덴버(Denver)의 메이블 엘리스(Mabel Ellis) 씨를 그녀의 후원 "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6. 기쁜 마음의 세 후원자! 조이스 팜(Joyce Palm), 엘레노어 오레(Eleanor Ore), L.R. 스톨너(Stoner).
7. 해리 스파크스(Harry Sparks) 씨는 박기옥(Pak Kee Ok) 소녀의 열렬한 후원자입니다.
8. 마침내 함께! Fern 존슨(Fern Johnson) 부인이 그녀의 사랑하는 "문빔(Moonbeam)"을 따뜻하게 포옹합니다.
9. 김진문(Kim Jin Moon) 어린이는 일리노이주 브로드뷰(Broadview)의 아이바 페리(Ivah Perry) 부인을 만날 때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10. ² 헬렌 오퍼하이드(Helen Auferheide) 부인은 그녀의 두 자녀로부터 환영 키스를 받았습니다.
11. 워싱턴주 왈라왈라(Walla Walla)의 로이 밀러(Roy Miller) 씨는 이 소중한 두 어린이의 열렬한 후원자입니다.
12. 콜로라도주 덴버(Denver)의 레오라 도허티(Leola Dougherty) 부인이 자신의 "아들"을 만났을 때는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13. 캘리포니아주 반 누이스(Van Nuys)의 존 카트(John Cart) 부부가 마침내 그들의 "딸"을 만났습니다.
14. 워싱턴주 그랜드뷰(Grandview)의 에드윈 램브레히트(Edwin Lambrecht) 씨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후원 자녀와의 만남이 이번 비전트립의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15. 머틀 E. 버글룬드(Myrtle E. Berglund) 씨가 원장님과 그 가족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16. 캐나다 온타리오주 블렌하임(Blenheim)의 클리블랜드(Glen Cleveland) 씨가 파주 크리스천 보육원(Pajoo Christian Orphanage)에서 그의 "여동생"을 만났습니다.
17. 노스다코타주 스탠리(Stanley)의 본다 루 로그네(Vonda Lou Rogne) 씨가 사랑스러운 세 어린이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18. S. 캠벨(Campbell) 부인이 보육원 직원들과 고아 소년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²헬렌 오퍼하이드 부인: 김명근 후원자 스토리 참고(한국컴패션 홈페이지 참고)

<https://www.compassion.or.kr/sympathy/child/detail?boardNumber=2168&codeNumber=0041&typeCode=BD01>

<https://www.compassion.or.kr/sympathy/child/detail?boardNumber=1449&codeNumber=0041&typeCode=BD01>

네, 11월 15일, 스완슨 목사님의 소천 소식이 전해지자, 비전트립 그룹은 모두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쁨을 느꼈습니다. 11월 20일 서울에서 추모 예배를 드렸으며, 비전트립의 리포터인 재닛 포사이스(Janet Forsyth) 여사는 스완슨 목사님이 만약 여기 계셨다면 하셨을 말들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

“제가 남겨두고 온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친구 여러분, 오늘 저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혜로우셔서 제가 천국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한국의 원장님들과 직원들이 후원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한국에 보내셨습니다. 저는 그들을 그렇게 위로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돌아오기를 바라거나 저를 위해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의 사명은 완성되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주님과 함께 있으며,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를 통해 시작하신 일을 계속하기 위해 남아 있는 사람들은 계속 전진해 주십시오. 해야 할 일이 많고, 사랑하는 고아들의 미래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계곡의 이편에서 하나님의 복된 계획을 알고 있으며, 그분의 뜻과 지혜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발아래서!

에버렛 F. 스완슨

이 전도사들은 설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 일할 기회를 가지려면 여러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کمپaign의 많은 친구들은 한 달에 10~20달러만 내면 현지 전도자를 후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약 50센트로 자신의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독신 전도사는 한 달에 10달러, 기혼 전도사는 20달러가 필요합니다.

کمپaign에서는 최대 2년간 현지 전도사를 지원합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대부분의 전도사는 자립하게 되어 자신의 교회 건물을 세우고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하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물론 어떤 이유로든 후원자가 2년 동안 후원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카고 사무소에 통보하고 후원 서류를 반환하면 됩니다.

모든 전도사 후원자는 그들의 활동에 대한 월별 보고서를 받습니다. 이 보고서들은 전도자들이 한국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나눌 때 많은 은혜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 거룩한 부담감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복음이 한국에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전도사 중 한 명을 여러분의 선교사로 선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바로 행동해 주십시오.

(전도사 프로필: 왼쪽 상단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종섭(KIM JONG SUB)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심한 핍박을 받았지만,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월 10달러).

이상균(LEE SANG KYOON)

인구가 1,200명인 지역에서 이 훌륭한 청년은 충실하게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월 10달러).

장동국(JANG DONG KOOK)

결혼하여 세 자녀가 있지만, 이 사람은 복음 전파에 헌신적으로 자신의 삶을 바치고 있습니다(월 15달러).

곽훈영(KWAK HUN YUNG)

이 사람은 공산주의 북한에서 탈출하여 지금은 한국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월 20달러).

김동훈(KIM DONG HUN)

이 주님의 종은 개인적으로 큰 희생을 치르며 복음 전파 사역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월 20달러).

오주봉(OH JOO BONG)

이 전도사는 아내와 여섯 자녀를 부양하면서도 개척교회에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월 20달러).

서창희(SUH CHANG HEE)

이 전도사가 설교와 전도 사역을 계속하려면 여섯 식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월 20달러).

성주호(SUNG JOO HO)

한때 "야만적인 죄인"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은 이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철저하게 헌신하고자 합니다(월 20달러).

손두규(SON DOO KYOO)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이 전도사는 복음 전파에 평생을 바쳤습니다(월 20달러).

김진평(KIM JIN PYUNG)

유교와 미신 속에서도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기혼 전도사입니다(월 20달러).

선노희(SUNNO HEE)

이 기혼 전도사는 시골의 우상 숭배자들 가운데 주님을 위해 신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월 15달러).

이창희(L EE CHANG HEE)

이 헌신적인 전도사는 극도의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농부들 가운데 일하며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월 10달러).

박정수(BAK JUNG SOO)

이 청년은 그리스도인이 얼마 안 되는 지역에서 섬기고 있습니다(월 10달러).

이해정(LEE HAE CHUNG)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적으로 연구하는 이 젊은이는 그리스도를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월 10달러).

김정식(KIM JUNG SHIK)

이 신실한 주님의 종은 개인적으로 큰 희생을 치르면서 시골 지역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월 10달러).

전도사 후원을 원하시면 아래 양식을 오려서 오늘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컴패션
 7774 Irving Park Road
 Chicago, Illinois 60634

저는 한국 전도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제 선택은 _____입니다. 만약 이 신청서가 도착했을 때 이 전도사가 이미 선택되었다면, 비슷한 다른 전도사를 후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는 매월 ____달러를 시카고 사무소로 보내겠습니다. 여기 [] 첫 달 후원금, [] 1년 치 후원금(연간 일시불로 납부 시 회계 처리 비용이 절감됩니다)을 동봉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합니다. "한국인 현지 전도사 지원에 관한 정보" 팸플릿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_____
 주소: _____
 도시: _____ 주: _____ 우편 번호: _____

컴패션 우체통

³오호, 동은 동, 서는 서, 둘은 절대 만나지 않으리...

- 키플링(Kipling)

아래 이어지는 편지들에서 발췌한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동서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저는 제가 후원하는 열두 살짜리 딸이 저에게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주는지 알려드리기 위해 얼마 전부터 편지를 쓰고 싶었습니다. 이제 제 삶은 목적이 생겼으며, 딸의 달콤한 편지를 기대합니다.

-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버라(Santa Barbara), M. M. K. 부인

우리 교회는 후원자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월급도, 수입도 없이 천막 교회에서 1년 동안 섬겼습니다. 나중에는 컴패션의 노력으로 후원자님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그룹이 생겨났고,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 861번 홍순복(Hong Soon Bok) 전도사

저를 입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자님의 아들이 되고 후원자님을 저의 훌륭한 어머니로 모시게 된 것은 정말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컴패션을 통해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도록 아들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149번 김기선(Kim Kee Sun) 학생

이렇게 소중한 컴패션 겨울 구호 프로그램(WARM, Winter Aid Relief Money) 기금을 이렇게 일찍 보내주신 친절한 후원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덕분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따뜻한 옷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³오호, 동은 동, 서는 서, 둘은 절대 만나지 않으리(Oh, East is East and West is West and never the twain shall meet...):

Rudyard Kipling의 시 "The Ballad of East and West"에서 유래한 구절로,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지리적 차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내용이다. "Never the twain shall meet"는 서로 다른 세계의 간극을 의미한다.

- 시온 크리스천 보육원(Zion Christian Orphanage), 최윤애(Choi Yoon Ae) 원장

윤선예(Yoon Sun Ye) 목사님의 교회가 이제 자립하게 되어서, 더 이상 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서 정말 기쁩니다. 저는 컴패션에서 언급한 한센병 환자 전도사를 후원하는데 관심이 있으며, 관련한 서류를 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사우디아라비아 다란(Dhahran), J. S. C.

우리 보육원 어린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후원자 여러분과 여러분의 기독교적인 사랑과 도움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 마산 뉴 라이프 보육원(Masan New Life Orphanage), 신치일(Shin Chi Il) 원장

제가 다니던 인천 송도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컴패션이 저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컴패션이 2년 동안 도와주셨고, 송도교회는 자립교회가 되었습니다. 만약 2년 동안 컴패션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자립교회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 사역에 후원자님의 도움이 컸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영혼을 얻는 기쁨을 맛보아 알고 있습니다!

- 783번 이락주(Lee Lak Joo) 전도사

한국 어린이들을 위해 따뜻한 겨울옷을 구입할 수 있도록 100달러 수표를 동봉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놀라운 일을 풍성하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후원하고 있는 고아로부터 받은 편지에 감사합니다.

- 일리노이주 시카고(Chicago), J. W. 부인